

# 지역 정책연구 컨트롤타워 '광주정책연구회' 출범

공사·공단 등 18개 기관 참여  
연구 역량 집약 플랫폼 역할  
공공기관 특성별 분과위 운영  
주요현안 등 융복합 공동연구

광주지역의 다양한 연구역량을 모으기 위한 정책연구 플랫폼인 광주정책연구회가 출범했다.

광주시는 지난 22일 광주연구원 대강당에서 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18개 기관이 참여해 설립한 광주정책연구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강기정 시장, 최치국 광주연구원장, 정민곤 광주도시공사 사장, 조익문 광주교통공사 사장, 김병수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김현성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 등 18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연구원,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강 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나홀로 연구기관이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연구 역량을 모아내는 플랫폼이자 컨트롤타워 기능을 위해 광주정책연구회가 출범했다"며 "저는 광주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도시가 되는 꿈을 꾸고 있다. 창업·교육·도시공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과감한 미래형 설계로 대한민국의 표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가운데)이 지난 22일 광주연구원에서 열린 '광주정책연구회 출범식'에서 광주시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등 18개 공공기관 대표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이날 18개 기관은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 협력체계를 구축, 광주의 현안 해결과 미래상을 만드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책지식생태계 싱크넷(Think-net)을 표방하는 광주정책연구회는 융복합적 협력을 통해 광주 도시 미래와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기관 간의 공동정책연구 네트워크 조직이다. 광주정책연구회는 18개 공공기관의 특성별로 5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책연구, 정보교류, 정책포럼 등의 분야에서 상호협력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향후 광주정책연구회는 분기별 실무위

원회와 연 1회 기관장이 직접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열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실행력을 높여갈 계획이다.

광주연구원 최치국 원장은 '광주의 미래를 여는 싱크넷(Think Net) 광주정책연구회 운영 계획안' 발표를 통해 "다양한 기관의 연구역량을 기반으로 융복합적 연구를 수행하는 공동연구 추진 △정책트렌드 파악 및 정책환경을 조성하는 정책포럼 개최 △상호 협업 필요성이 높은 공공기관 간 인적 교류 및 시설 공유 △공공기관별 연구 성과물 통합관리 시스템 및 공공데이터(DATA) 공유 시스템 개

발 및 운영 △공공기관 혁신우수사례 박람회 개최 등 5대 중점사업을 제안했다.

출범식 이후 이어진 '정책지식생태계 구축 포럼'에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홍일표 사무총장이 '정책환경의 변화와 정책지식생태계 재구축'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또한 공공기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광주도시공사 도시주택연구소이봉수 소장이 매력도시 분야 협력 방향을, 광주테크노파크 정책기획본부 김은섭 본부장이 첨단산업도시 분야 협력 방향을, 광주여성가족재단 여성가족정책실 고보혜 실장이 포용도시 분야 협력 방향을 발

표하고 종합 토론을 진행했다.

광주정책연구회 참여기관은 △경제·산업 분과에 광주테크노파크,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광주그린카진흥원, 인공기능산융합사업단 △도시·환경 분과에 광주도시공사, 광주교통공사, 광주환경공단,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사회·복지 분과에 광주여성가족재단, 광주사회서비스원 △문화·관광 분과에 광주관광공사, 광주디자인진흥원, 광주문화재단,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교육·지역학 분과에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한국학호남진흥원, 광주영어방송 등이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

## 전남도, 전략작물 직불금 403억 연내 지급

전남도가 올해 처음 시행된 '전략작물 직불금'을 전국에서 가장 많은 403억원으로 확정하고 이달 말까지 농가에 지급한다.

전남은 전국에서 농지 면적이 가장 넓어 전략작물 직불금액도 전국 1079억원의 41%(403억원)를 차지했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전략작물 직불금 지급 대상은 3만여 농업인·농업법인이다. 이 중 동계작물은 2만6000명에게 236억원, 하계작물은 4000명에게 133억원을 지급하며 전략작물 인센티브로 34억원을 지원한다.

전략작물 인센티브는 동계 밀·조사료, 하계 논콩·가루쌀을 재배한 필지에 ha당 100만원 추가 지급한다.

전략작물 직불제는 논에 벼 대신 콩·밀

·가루쌀·사료용 곡물 등을 재배하면 ha당 50만~48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논콩 등 재배 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에서 피해 여부를 확인해 1828ha에 38억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전략작물 직불금은 콩·밀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식량작물의 지급률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도 많은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전략작물 직불금에서 지원하지 않는 품목을 지원하는 '논 타작물 지원사업'을 별도로 추진 중이다. 1875ha에 대해 37억원을 12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최항지 기자

## 광주시, 내년 아동급식단가 9000원으로 인상

### 결식우려 아동 1만6천여명 대상

광주시는 성장기 아동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내년도 아동 급식비 단가를 기존 8000원에서 9000원으로 1000원 인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18세 미만의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1만6000여명이며, 이에 따른 예산액은 221억원이다.

대상자 선정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한부모가정 아동이나 교사·사회복지사·통장단 등을 통해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을 발굴해 자치구 급식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아동은 일반음식

점이나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 급식카드가맹점 1만6400여 곳을 이용하거나 도시락 배달, 지역아동센터 등을 통해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18일부터 겨울방학 급식 지원을 시작했다. 방학기간 결식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공무원, 교사, 이웃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지원하는 한편 급식 제공업체에 대해 위생상태와 급식의 질 등을 수시 점검할 계획이다.

임애순 아동청소년과장은 "세수감소로 인한 재정 절벽의 위기 속에서도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급식단가 인상을 결정했다"며 "방학 중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을 적극 발굴해 아동급식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 현장을 점검해 위생과 영양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7월 아동급식카드가맹점을 기존 1900여 곳에서 1만6400여 곳으로 대폭 확대하고, 결식아동이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하며 느끼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급식카드를 일반 신용카드 디자인으로 변경했다.

또 가맹점 위치, 잔액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등 이용 아동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권범 기자

## "온라인으로 '주민e직접' 참여하세요"

주민참여 제도 통합 플랫폼 '주민e직접'이 내년부터 더욱 편리해진다.

광주시는 주민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각종 주민참여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주민e직접'을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17개 시·도가 공동 구축한 '주민e직접'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컴퓨터(PC)와 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전자서명에 간편인증제도를 도입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원하는 시·민 누구나 주민조례, 주민투표, 주민감사 등 주민직접 참여제도에 온라인으로 청구하거나 서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처리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전국 자치단체 자치법규 제·개정·폐지 입법 예고 현황과 현행 자치법규 정보도 손쉽게 확인 가능하다.

특히 내년부터는 모바일 청구, 온라인 의견 조사 등 신규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진아 법무담당관은 "주민e직접 플랫폼을 통해 행정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주민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다"며 "온라인 주민참여 제도 활성화를 통해 주민중심의 지방자치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 올해 도정 뉴스 1위 '고향사랑기부금 100억 돌파'

전남도는 25일 도정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최근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한 '2023년 전남도정 10대 뉴스'를 발표했다.

전남도는 부서별로 올 한해 주목 받은 도정뉴스를 추천받아 60건을 추린 다음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가장 관심을 끈 전남도정 뉴스는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 100억 돌파'가 1위에 선정됐다.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 100억 돌파'는 전남도가 지방재정 확충과 관계 인구 확보를 위해 전략적 홍보, 답례품 선정, 기금사업 발굴, 타 기관과의 협력 등 밤낮 없이 발로 댄 값진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어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무안국 제공항 활성화 위한 담화문 발표 △전남도 국립과대학 설립 유치를 위한 범도민추진위원회 출범 △전국체전·장애인 체전 개최 △제29회 국제남도음식문헌간치 개최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 예타면제 △국내 최대 해상풍력 배후단지 조성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개최 △동부청사 개칭이 선정됐다.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은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 1만원으로 청년은 최장 6년, 신혼부부는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사업이다. 앞으로 16개 군에 최소 50가구 이상의 임대아파트를 제공할 계획이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담화문'

은 지난 5월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도청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것으로 "무안군이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길 바란다"고 호소하며 도민께 큰 절을 올려 주목받았다.

이번에 선정된 10대 뉴스는 전남도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고미경 전남도 대변인은 "올해는 전국 체전 등 전남 곳곳에서 열린 다채로운 메가이벤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글로벌 도정 실현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된 한 해였다"며 "2024년 갑진년 새해에도 도민께 도움이 되는 도정 시책과 세계로 대도약하는 전남 소식을 알리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항지 기자